

# 農耕방식 바꾸도록 북한을 지원하자

식량부족에 따른 북한의 기아현상은 심각하다. 우리는 우선 긴급한 식량을 북한에 원조해 주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식량자급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방식의 개선을 설득하고 협조하는 일이다. 현재 북한의 경지면적은 논과 밭의 비율만 다를 뿐 남한과 비슷하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게 부족한 비료와 농약, 농기계 부품품 등의 우선 지원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夫 庚 生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

**이**전부터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에서는 북한의 긴급한 식량사정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식량 원조와 실제 상황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는 우선 그 실상을 자세히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대처방안이 나오기 마련이라 그들의 실상에 대한 활발한 토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북녘에 살고 있는 2천4백여만 주민이 엄연히 우리와 같은 한민족의 일부로 그들의 참상에 우리 남녘의 동포들은 남달리 가슴 아프고 그지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대홍수와 가뭄으로 식량생산에 큰

차질이 생김은 물론 논밭이 크게 황폐화되어 요즘 농사일까지 걱정될 정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 같다. 다만 그 피해정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적어서 전문가들 간에 조금씩의 해석차이가 날 뿐이다. 따라서 우선 굶주림으로 부터 이들을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원조에 대한 북한 위정자들의 자세와 앞으로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질 것이냐 하는 점 및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원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들일 것이다.

## 북한 식량부족은 연간 1백~2백만톤

이런 유의점들은 북한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현재의 긴박한 북한 식량사정이 최근 그들이 겪은 홍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인하는 한시적인 난제라면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장 경영체제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식량자급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예상되어 연간 1백~2백만톤에 달하는 식량원조 문제가 금년으로 끝나지 않

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식량을 지원하지 말고 농업기술을, 또는 농약과 비료같은 농업자재를, 심지어 북한의 주 작목인 벼나 옥수수의 좋은 품종들을 주거나 아니면 개발하여 주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은 어떤 주장이 최선인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의 농업실상, 특히 그들이 거의 매년 겪다시피 하는 농작물 흉작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하는데서 나오는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 북한의 경지면적 남한과 비슷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도 먼저 농업 기계화를 시작하고 관개시설을 일찍부터 서두르고 토지개혁을 통하여 공산정권 수립 후 특히 한국전쟁 후 해방 전에 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여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그들의 식량자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 하였다.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남한과 비슷한데 다만 논과 밭의 비율이 남한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역전된 형편이다. 그래도 북한은 논 약 60만정보, 밭 약 1백40만정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들의 인구가 남한의 반이라는 사실과 아직 고급 식량을 원하는 단계까지 경제가 발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식량 특히 주곡을 자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1980년 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었고 또한 다른 산업들의 침체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농기계 부속품들의 공급차질과 연료 부족 등으로 농기계가 잘 돌아가지 못하고, 처음부터 풍부하지 못하였던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의 생산은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나아가서 소위 벼물바구미(북한에서는 벼물코끼리벌레라고 불리우는)라는 외래

해충까지 침입하여 벼 생산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앞친데 덮치는 격으로 부족한 식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 야산들을 모두 개간하여 옥수수밭으로 만들면서 자연의 재해는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즉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가뭄 피해를 받게 되고 조금만 더 와도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받게 되었다. 심지어 이런 토양유실에 따라 강과 하천들의 하상이 높아져 하천의 범람도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집단농장 경영체제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북한은 주곡인 벼와 옥수수(강냉이)에 대한 전문 연구소들을 일찍부터 여러개 설립하여 재배 기술은 물론 특히 북한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품종들을 육성하는데 많이 노력하여 왔다. 특히 중간잡종연구실까지 설립하여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아직 품질에서는 문제있지만) 품종들을 많이 육성하여 적어도 시험장 수준에서는 우리와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학자들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북한지역에서의 벼 생산성이 우리와 같아질 수 없다고 여기지만 그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품종이 육성된다면 생산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농민들의 의욕상실 큰 문제

이는 북한 바로 북쪽에 있는 중국 연변지역에서의 벼농사 실상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즉 낮기동간에는 남북한 지역 모두 비슷한 고온을 유지할 수 있어 별다른 차이가 나지않은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밤에는 오히려 북한지역의 기온이 남한보다 더 내려가기 때문에 호흡활동에 따른 양분의 손실이 적어 결국 저장되는 양분 - 이것이 수확량으로 연결된다 - 이 남한보다 적

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들이 개발한 좋은 품종들이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에 보급되면 그 생산성은 반이나 그 이하로 뚝 떨어지고 만다고 한다. 결국 농민들이 작물들을 제대로 재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그 원인이 농약이나 비료들의 공급부족과 재배기술의 낙후 때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농민들의 의욕상실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추론은 각 농가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위 텃밭의 생산성이 집단농장보다 배 이상 높다는 얘기들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북한정권이 집단농장을 소위 국영농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이 방법을 오히려 농민들을 최종적으로 해방시키는 길이라는 논리로 주장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영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공장근로자와 똑같이 월급을 받는 위치가 되어 집단농장에서 조금이나마 누려보든 농민들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며 그들의 농업생산성은 더욱 나빠질 것도 자명하다.

### 우선 비료·농약·농기계 등 지원해야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이 저하하는 현상은 과거 공산당 지배하의 여러 국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집단농장의 경영방식을 개혁하여 식량 문제를 극복한 예가 바로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쉽게 관찰된다. 중국의 경우 문화혁명 후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농민들에게 토지경작권을 주고 작물을 재배한 후 일정량의 생산곡물을 국가에 바치고 남는 것은 모두 경작자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몇년 지나지 않아 단위면적 당 곡물생산량이 2~3배로 높아져 일시적이지만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중국이 다시 식량부족으로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게 된 배경은 그들의 경제발전에 따른 고급식량의 요구가 높아지고 경작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 점에도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경작지 면적은 세계 경작지 총 면적의 7% 뿐인데 반하여 인구는 세계 총인구의 22%를 차지하여 도저히 균형이 맞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아무리 농업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방 후 북한이 일시적이거나 식량자급을 할 수 있게 된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될 것이다. 즉 일본의 점령하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일종의 소작농으로, 농사일을 자기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다가 토지개혁과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정책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여도 너무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선 긴급한 식량은 북한에 원조하여 주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들의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그들의 농업경영방식을 바꾸도록 설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최근 농업중시정책을 국가의 3대 중점사업 중 하나로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의 집단농장 나아가서 국영농장의 경영방식으로는 그들의 식량자급문제를 조금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런 접근 방식에는 북한 위정자들의 완강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국가들과 조율하여 이 길만이 거의 매년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기아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한다면, 또한 식량원조를 이런 조건하에서 제공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북한이 부족한 비료와 농약 등의 기자재 지원문제, 농기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품과 유류 공급문제, 파괴된 자연생태계의 복원문제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등 북한농업과 농촌 및 농민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ST)